

멸종위기생물의 보고 DMZ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추진

최재훈 기자 입력 2021-10-06 17:46:46



비무장지대(DMZ)에 자생하는 금강초롱꽃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공

다양한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지정이 추진된다.

6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DMZ 일대에서만 자라는 희귀·특산 식물인 개느삼과 금강초롱꽃 자생지 보전을 위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물 자생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IUCN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은 세계적 기준의 주요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세계 보호지역 평가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보호지역과 달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0개국 1만6천343곳이 지정돼 있다.

한반도에서는 '조류 서식지'로 남한 40곳, 북한 33곳이 지정돼 있으나 식물 자생지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DMZ에 자생하는 개느삼과 금강초롱꽃은 IUCN이 정한 적색목록 위기종(EN)으로 자생지는 강원도 양구군 등 13개 시군에 걸쳐 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다른 보호지역 지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단기간 내 지정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 자생지를 국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KBAs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